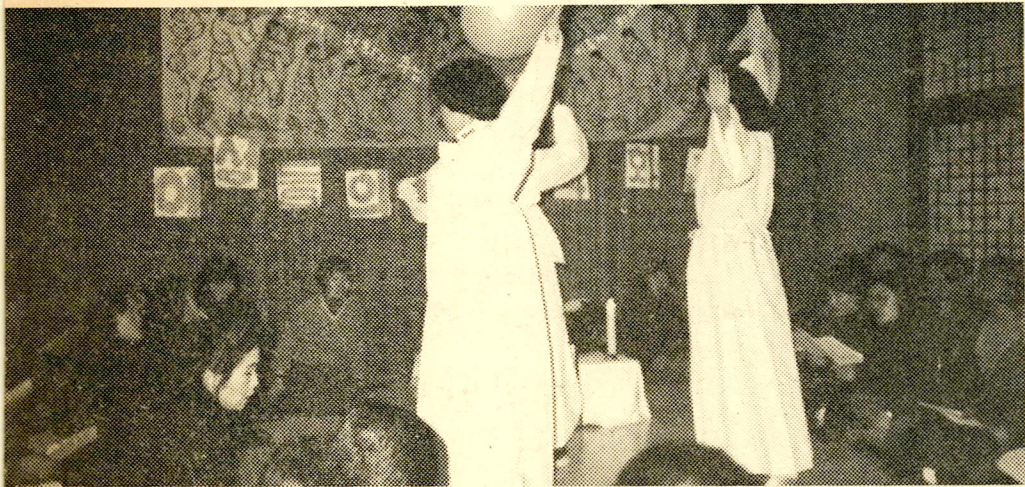


가톨릭

전통양식 낀 '여성미사' 첫 시도

가톨릭여성신학모임 등 주관, 여성을 구원 핵심으로 재해석 수용 여부가 과제, 부활절·성모승천대축일 등에도 계획



▲이날 미사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허리잡린 '분단조국에 비유, 서로 만나 화해함으로써 통일을 이룬다'는 내용의 <통일춤>으로 형상화 했다.

가톨릭의 전통미사양식을 탈피한 '여성공동체미사'가 처음 선보였다.

대림절 넷째주일인 지난 22일 오후 2시 '여성들의 만남과 화합'을 주제로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있었던 <91 여성공동체미사>는 우리가 띠에 맞춘 성가와, 복음을 춤으로 형상화하는 토착성 길은 전례를 곁들였고 기도가 여신자들에 의해 드러지는 등 전통적 미사형식을 깨뜨린 획기적인 시도로 진행되었다.

이날 미사는 가톨릭신학대 교수인 함세웅(52) 신부가 집전, 강론을 했으나 민요 '종기도 좋을시고' '널리리아'를 개사한 성가와 말씀의 전례에 여성의 억압구조를 고백하는 독서를 포함시키는 등 여신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중심이 돼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미사참

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제와 함께' 직접 참여한 미사였다. 또한 강론에 앞서 제2독서로 택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루카1장 37-45절)을 분단의 아픔과 그 극복으로서의 통일을 형상화한 '통일춤'으로 표현한 시도는 시대 상황에 걸맞는 훌륭한 해석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성서 속의 두 여인의 만남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피로 운 심정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해 고통을 나누며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화합의 만남으로 자주 해석돼 온 부분이다.

함세웅 신부는 이날 강론을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의 가톨릭 실정에서 이번 미사는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기존문화와 종교, 사회로부터 교육받은 전통적인 고정관

념과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주 상징적인 미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성서를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점은 구원사적 맥락에서도 여성이 보조자가 아닌 '구원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미사는 최첨단 전례로 널리 수용되기엔 아직 강한 느낌이 많아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 이 과정이 큰 과제로 남아있음도 지적했다.

그간 일부 진보적 개신교회가 여자목사의 임직을 허용하고 여성의 눈으로 예배를 이끄는 <여성교회>가 개척되기는 했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이번 여성미사는 좀 뒤늦은 출발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성사제조차 허용되지 않는 보수적 가톨릭교회에서

것이라고. 이 과정에서 <가톨릭여성신학모임>, <여성신앙인사회학교> 1, 2기생, 가톨릭 문화운동연합이 오랜 준비끝에 공동으로 마련했다.

윤순녀 씨는 "가능하면 부활절, 성모승천대축일 등 절기마다 시행해 볼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가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엄격히 나뉘어져 모든 결정권은 사제가 갖고 있다. 특히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목위원회에도 가톨릭신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신자를 대표해 1~2명만이 참여할 수 있을 뿐 교회내 여성들의 위치는 '침묵 속에서 봉사'하는 실정.

따라서 단순한 미사참례가 아닌 '사제와 함께' 드리는 새로운 형태의 이런 시도는 각 성당으로 파급돼야 한다는 게 가톨릭 쇄신운동에 앞서는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난곡성당에 다닌다는 이문희(31. 관악구 신림동) 씨는 "처음에는 상당

히 놀랐다. 그러나 가톨릭대 여신자들의 위치나 모임이 맹목적인 신앙에 젖은 전통의 틀에서 결정적 참여없는 봉사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신도들의 자각을 통한 적극적 수용자세도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사실 이날 미사의 절정은 침묵을 강요 당하던 여신도들이 <박해받는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기도>와 <가난한 여성으로서 루크의 기도>, <가부장제로 고통받는 여성으로서 사라의 기도>, <위로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누는 여성으로서 엘리사벳의 기도>, <지도자로서의 어려움을 지닌 여성으로서 미리암의 기도>가 이어지고 <남성중심주의와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으로서 판관기의 이름 없는 여인의 기도>가 7명의 여신도들에 의해 드러진 것이었다. 종교의 전통을 깨려는 노력의 성패여부는 역시 일반신도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 앞으로의 평가가 주목된다. <박혜숙 기자>